

4월의 농사 메모



◇ 벼 농 사

○보온못자리설치

▲못자리터는 남향으로 햇빛조임이 좋고 물대기와 물빼기가 자유로운 농로나 수로옆에 집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본논과 멀지 않아도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집에서 가까워 관리하기에 편해야 한다.

▲못자리를 너무 일찍 설치하면 보온하기에도 힘이 들고 병해를 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적기에 설치한다.

▲못자리에서 본엽이 3배정도 나올 때부터는 외기온도가 20°C 이상 되면 비닐갓을 열어 통풍을 시켜 비닐덮개안의 온도가 35°C 이상되지 않게 한다.

▲파종량은 3.3m^2 당 1모작용 묘판은 0.25kg (2.5홉), 2모작과 예비묘판은 0.2kg (2홉)정도로 파종하여 묘의 하엽이 고사되지 않고 줄기가 굵고 2본정도 분蘖되는 전묘가 되도록 한다.

▲반드시 소금물가리기(비중 : 신품종 및 찰벼 = 1.08, 재래품종 = 1.13)를 하여 충실히 범씨를 고르고 반드시 종자소독을 실시한 후에 씨담기를 한다.

▲씨담그기는 범씨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게 될때까지 물 온도는 15°C 정도일 때 6~8일간 담그면 되고 씨담그는 기간동안에는 매일 새물로 갈아준다.

○ 객토후의 질소질 비료주기

▲ 객토대상지는 모래가 지나치게 많은 논과 같이 흙이 10cm정도로 얕은 논으로서 땅속에 자갈과 바위등이 바치고 있어 깊이갈이를 할 수 없는 논을 선정한다.

▲ 객토에 사용하는 흙은 반드시 찰흙함량이 25% 이상인 흙을 사용하고 객토를 실시한 논은 퇴비나 벗짚을 소정량 사용하고 객토량에 따라 질소비료를 20~30%정도 더준다

○ 규산과 석회비료 사용

지난해에 급년도용으로 공급된 규산질 비료는 봄같이 전에 고루 뿌리고 갈이 작업을 실시하여 석회비료와 남아지 규산질비료가 공급되면 인수 즉시 대상포장에 사용한다.

○ 기계이양육묘

▲ 파종 : 손이 양재배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염수선, 종자소독, 침종을 실시하고 싹틔우기를 하되 상자파종시는 싹의 길이가 2mm정도 비닐깔판파종시는 2~3mm정도 되도록 한다.

▲ 경화 : 녹화된 묘를 자연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순화시키는 일로서 묘판에 상자를 놓을 때는 상면과 상자사이가 밀착되도록 해야하며 낮에는 35°C 이상 되지 않도록 통

풍에 주의하고 야간에는 10°C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관리에 힘쓴다.

◇ 발농사

○ 밀·보리발 관리

▲ 2차 웃거름은 늦어도 4월 상순까지는 주고 웃거름을 준 다음에는 많은 흙넣기를 하여 헛새끼치기를 억제하면서 튼튼하게 자라 쓰러지지 않게 한다.

▲ 이달부터 습해를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출에 감소를 가져오므로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를 잘 정비한다.

▲ 습해를 받았을 때는 물빼기 작업과 함께 요소 2%액을 2~3회 엽면시비 한다.

▲ 이달 하순부터 충남부지방 조숙종 보리의 출수가 시작되므로 출수기를 전후한 밖은곰팡병방제에 힘쓴다.

○ 옥수수 파종

▲ 파종적기는 대체로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이며 심는 거리는 신품종은 이랑폭 60cm에 주간 30cm, 황옥종은 이랑폭 75cm에 주간 30cm를 기준으로 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는 주간거리를 25cm로 줍혀서 밀식한다

▲ 파종량은 심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신품종은 10a당

2kg, 황옥종은 4~5kg이며 시비는 10a당 퇴비 1.5~2.0톤을 반드시 사용하고 금비는 질소, 인산, 가리를 각각 9kg, 15kg, 15kg을 사용하는 데 복합비료(8-14-12)는 4~5포를 사용하면 균형시비가 된다.

○고구마 묘상관리

▲3월에 설치한 고구마 묘상은 낮에는 비닐을 벗겨주어 외기에 적응력을 기르면서 물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물주기를 하여 상토의 수분을 70%정도로 유지시킨다.

▲발아초기에는 온도를 28~30°C, 중기 이후에는 25°C 정도로 유지하고 온상창관리는 묘의 길이가 5~10cm되었을 때 따뜻한 날에는 2~3시간 환기시켜 주고 20~25cm정도로 자랐을 때는 낮에만 문을 열어주고 채묘 10~15일 전부터 완전히 제거한다.

○콩 파종준비

▲5월부터는 콩을 파종하게 되므로 지역장려품종중에서 병이 없고 충실하게 여문 종자를 미리 준비한다.

▲콩은 산성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므로 콩을 심을 밭에는 미리 석회를 주고 갈아 토양개량을 해야한다.

◇ 채 소

○채소의 아주심기

▲고추 : 일찍 가꾸기의 아주심기는 남부지방은 4월 하순~5월 상순, 중부지방은 5월 상순~중순이며 아주심기 7~10전부터 온상에서 모 굳히기를 실시한다.

아주심기 2주전에 본밭에 퇴비, 석회, 닦똥등을 전면에 살포하고 1주일전에 75~90cm 또는 1백 50~1백 80cm로 두둑을 만든후 밀거름을 주고 0.2cm 비닐을 멀칭하였다가 아주심기를 한다.

▲오이 : 아주심기 1주일 전부터 모 굳히기 작업을 실시하여 본답에 밀거름을 주고 이랑나비 90cm 또는 1백 80cm로 두둑을 만들고 비닐멀칭을 하여 지온을 높인다.

▲참외·수박 : 아주심기에 알맞는 모는 본잎이 4~5배가 된 것으로 4월 하순~5월 상순이 적기이다. 그러나 터널을 쌓워 아주심기를 할 때는 20~25일 일찍 옮겨심을 수 있다.

○직파재배 채소파종

▲본답에 직접 파종하는 무우, 배추, 여름오이, 참외, 호박, 파등은 이달 중·하순에 밭을 잘 고르고 종자소독한후 짹을 틔워 뿌린다.

▲싹이 나오면 쥐아주기와 병충해

◆ 이달의 농사메모 ◆

방제를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, 초기 사람을 도와준다.

○마늘·양파밭 관리

▲마늘·양파밭은 잡초의 발생을 막고 가물때는 물을 대주거나 왕겨, 퇴비가루를 뿌려주어 가뭄피해를 막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고랑을 깊이 파서 배수를 좋게 한다.

▲이달은 고자리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므로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준다.

◇ 과 수

○품종갱신

▲고접갱신법으로는 10년 이상의 큰 나무에서는 접진적으로 고접을 하여 갱신하고 유목에서는 한꺼번에 갱신을 하여 수확량을 일시에 줄이지 않도록 한다.

▲접목방법으로는 봄에는 깍이접으로 하고 여름에는 눈접으로 하여 갱신한다.

깍이접의 시기는 3월 하순~4월 중순에 실시하여 접수는 전년에 자란 가지를 1~2월에 채취하여 땅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한다.

○약제처리와 과일솎기

▲과수의 과일솎기는 결실과다를

방지하여 과실의 크기, 해결이 방지 수세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
▲약제를 이용한 적화, 적과방법은 꽃이 피었을 때 뿐만 수정을 방해하는 적화제로 석회유황합제가 있으며 복숭아 사과에 실용적이다. 열매가 달린후에 열매를 벌어지게 하는 적과제는 살충제인 나크수화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과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○병해충 방제

▲이달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과수의 잎이 나오게 됨에 따라 각종병해충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
▲주요방제 대상병해충으로는 사과는 부란병, 흰가루병, 흑성병, 잎말이나방류, 진딧물, 응애류가 있으며 배는 붉은별무늬병, 흑반병, 진딧물, 깍지벌레류, 복숭아는 잎오갈병, 탄저병, 세균성구멍병, 심식충류, 진딧물류, 포도는 새눈무늬병, 만누병, 포도유리나방등이 방제대상이 된다.

○재해대책

▲4월은 기상의 변화가 많아 꽃피는 시기에 급격한 저온으로 동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10a당 20여개소에 왕겨, 타이어 등으로 불을 피운다.